배우고 공감하며
함께 성장하는
행복한 청평교육

# 청평 가정 통신

발행인 : 청평초등학교장
담당자 : 교사 이향임, 정경아

## 빛나지 않는 별, 차별

안녕하세요.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,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

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(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)입니다. '제42회 장애인의 날'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장애 이해 및 인권교육을 위한 간단한 안내 자료를 배부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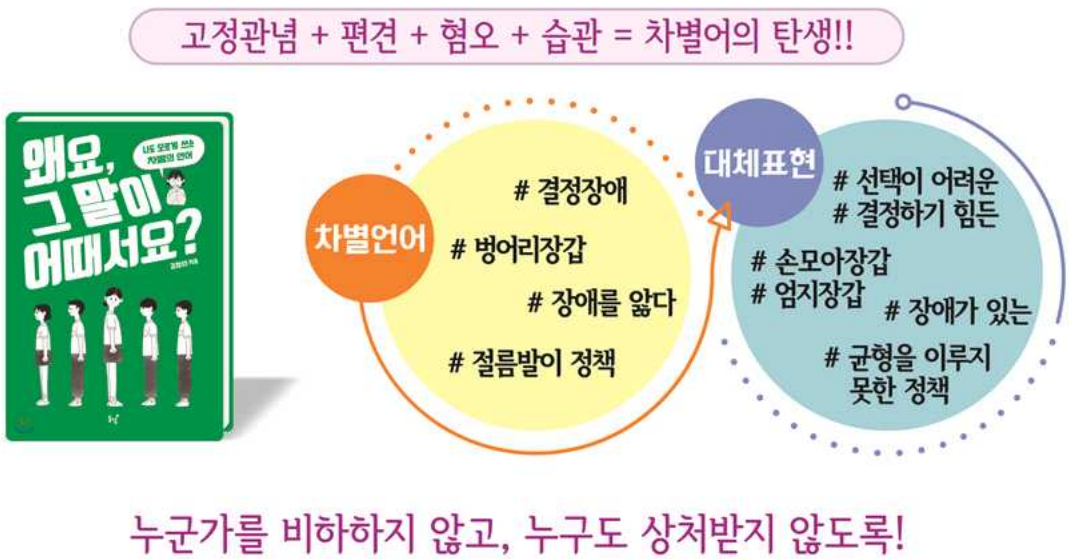
점점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,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조화의 행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학교와 더불어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.

**우리나라는 4월 20일을 법정 기념일**인 **'장애인의 날'**로 정하고 있습니다.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에 대해 되돌아보는 날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많은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.

하지만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게 만든다는 의견이 있어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날 대신 **'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'**로 규정하기도 합니다. 이들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뜻을 모으기도 합니다.

언젠가 다름이 인정받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온다면 '장애인의 날'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? 막연한 먼 훗날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!

장난삼아, 악의 없이,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평범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칼이 되는 말!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상처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. 별생각 없이 던진 표현들이 내 친구, 가족에게도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?




출처 : 김청연, 『왜요, 그 말이 어때서요?』, 동녘, 2019

2022. 4. 20.

청 평 초 등 학 교 장